

#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비교

권미경<sup>1</sup> · 방경숙<sup>2</sup> · 김형경<sup>3</sup>

가톨릭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1</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교수<sup>2</sup>,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sup>3</sup>

## Comparison of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between Mother and Father

Kwon, Mi-Kyung<sup>1</sup> · Bang, Kyung-Sook<sup>2</sup> · Kim, Hyungkyung<sup>3</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up>3</sup>Master Cours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between mother and father. In furthermore,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based on the data. **Methods:** A descriptive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85 couples of mother and father of newborn, hospitalized in postpartum care center.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was measured from the two postpartum care center located in G province.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t-test and 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using SPSS. **Results:** Comparing to the mothers', the scores for fathers'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were lower. Particularly, fathers of first-born showed lower score of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Also, fathers were lacking of knowledge and confidence related to health problem management.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nursing intervention which encourage fathers to raise the confidence in involvement of newborn care is needed to be developed. Also evaluation of the effect of newborn care education for parents, and longitudinal study of effect 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is suggested.

**Key Words:** Mothers, Fathers, Newborn care, Knowledg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일생에 있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 중 하나로서 많은 노력과 적응을 필요로 한다(Leigh & Milgrom, 2008). 부모는 신생아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차적 환경요인으로(Ateah, 2013),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며 의존적인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Lee, 2006). 또한 부모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중

요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자신감 등이 필요하다(Ateah, 2013; Lee, 2009).

그러나 과거보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적 변화로 인해 더욱 어렵다. 과거에는 대가족 내에서 부모됨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었지만(Zwelling, 1996), 오늘날의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적 정보 획득의 부재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경험과 지식의 부족을 겪으며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하였다(Lee & Jang, 2009). 출산 후 조기퇴원과 산후 조리원의 이용은 신생아 돌보기 준비와 전문적 교육의 부족으로 부모 역할 획득을 어렵게 한다(Lim, 2001).

**주요어:** 어머니, 아버지, 신생아, 지식

**Corresponding author:** Bang, Kyung-Sook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740-8819, Fax: +82-02-765-4103, E-mail: ksbang@snu.ac.kr

투고일: 2015년 3월 9일 /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30일

최근에 아버지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양육에 적극적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버지도 아기를 기르는 주체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아기 돌보기는 더 이상 어머니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Kim, 2011). 아기 돌보기에 대한 적절한 준비 없이 부모라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머니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부담감을 느끼고(Nelson, 2003),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 수행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어려워하면서 아기 돌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Fagerskiöd, 2006; Lim, 2001).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기 돌보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서로 다른 특성상 아기를 돌보기와 관련된 지식이나 태도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h와 Yee (2006)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Jang (2009)은 임신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아기 돌보기에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 지식, 자신감 및 효능감,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교육요구도 조사 연구들(Kang, Kim, & Son, 2004; Lee, 2009; Moon & Han, 2006)과 신생아 돌보기 교육 제공과 효과 평가 연구들(Kim, 2005; Park, 2009)이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는 아버지의 역할자신감 조사연구 및 신생아 돌보기 중재의 효과 평가 연구들(An & Bang, 2014; Hwang, 2003; Lim, 2001)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와 관련된 효능감과 지식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Oh & Lee,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산전과 산후 부모 대상 신생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돌보기 지식 및 자신감 정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정도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및 자신감 정도와 차이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일 개 시에 소재하는 산후조리원 두 곳에 입원해 있는 출산 후 4주 이내의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 85쌍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일 때 paired t-test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54쌍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 산후조리원의 기관장 및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정보의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4. 연구도구

#### 1) 신생아 돌보기 지식

신생아 돌보기 지식은 Seo (1998)가 개발한 신생아 돌보기 지식 척도를 An (2014)이 수정·보완한 총 16개 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신생아 목욕, 수유, 주변 환경관리, 아기 돌보기, 이상증상 발견과 간호 및 황달, 배꼽간호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맞다, 틀리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문항에 대해 옳게 답한 경우 1점, 틀리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는 최소 0점부터 최대 1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보기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Lim (2001)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개발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측정도구를 An (2014)이 수정·보완한 16개 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신생아 목욕, 배꼽 및 주변 환경 관리, 기저귀 갈기, 아기의 이상증상과 황달, 트림시키기, 아기 달래기 및 돌보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서 “매우 자신 없다” 1점부터 “매우 자신 있다” 5점까지 배점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8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보기에 대해 자신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An (2014)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였다.

## 5. 자료수집

G시에 소재한 2개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얻은 후,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담당 간호사에게 설명하였다. 다음 입원해있는 산모(신생아 어머니)와 남편(신생아 아버지)에게 간호사를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산모와 남편은 서로 상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식과 자신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자신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으며,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결혼기간은 48.52개월이며, 83.5%가 핵가족이었다. 연령은 산모가 평균 31.06세, 남편은 33.23세였으며, 교육 수준은 산모는 대졸 이상이 76.2%, 남편은 74.7%였다. 산모 중 47.6%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남편의 직업

은 회사원이 36.1%로 가장 많았다. 자연분만은 51.2%를 차지하였고 아기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51.8%였다.

##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의 차이

신생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가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나 셋째 이상인 경우 신생아돌보기 지식이 높았다( $F=4.14, p=.020$ ).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업과( $F=3.72, p=.008$ ) 가족의 수입에 따라( $F=3.58, p=.018$ )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신생아가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나 셋째 이상인 경우 신생아돌보기 지식이 높았다( $F=5.60, p=.005$ ). 신생아돌보기 자신감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신감도 더 높아( $F=3.98, p=.023$ ) 어머니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Scheffé의 사후 검정 결과,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기타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족의 수입에서는 2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신생아가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나 셋째 이상인 경우의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 3.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의 차이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돌보기 지식과( $t=4.61, p<.001$ ), 자신감이( $t=3.37, p=.001$ )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신생아돌보기 지식의 총 16개 세부적인 항목 중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은 신생아 수유 1개 항목, 주변 환경관리 2개 항목, 아기를 돌보기 1개 항목, 이상증상 발견과 간호에서 3개 항목, 그리고 배꼽간호 부분 1개 항목, 총 8개 항목이었다(Table 3). 자신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높은 항목은 총 16개 중 11개 항목이었다(Table 4).

## 4.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과의 관계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한 Pearson's correlation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r=.29, p=.011$ )은 유의한 상관관

**Table 1.** Difference of Mothers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5)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Confidence		
		n	M±SD	t or F (p)	n	M±SD	t or F (p)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20	10.35±2.78	-1.73 (.096)	19	58.74±11.65	0.15 (.883)
	≥Undergraduate	61	11.52±2.17		59	58.34±9.69	
Occupation	Yes	42	11.05±2.05	0.64 (.523)	41	58.63±10.55	-0.35 (.726)
	No	39	11.38±2.66		37	57.84±9.31	
Family income	100~200	8	11.00±2.93	1.99 (.122)	8	57.00±8.23	0.91 (.440)
	201~300	23	10.48±2.98		20	58.10±11.19	
	301~400	28	11.21±1.81		28	56.86±10.80	
	≥401	23	12.13±1.84		23	61.30±8.57	
Family type	Nuclear	68	11.13±2.41	-0.94 (.349)	66	57.83±9.84	-1.30 (.199)
	With parents or other members	14	11.79±2.08		13	61.77±10.93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9	10.92±2.65	1.21 (.305)	35	58.77±10.23	0.66 (.520)
	Satisfied	34	11.44±2.15		35	58.91±9.64	
	Moderate	8	12.25±1.39		8	54.50±11.94	
Planned pregnancy	Yes	53	11.28±2.44	0.20 (.841)	52	58.56±10.37	0.09 (.926)
	No	29	11.17±2.25		27	58.33±9.64	
Delivery type	Normal delivery	41	11.10±2.43	-0.67 (.505)	40	57.73±9.96	-0.60 (.550)
	C-section	40	11.45±2.31		38	59.11±10.33	
Babys order	First	42	10.57±2.74	4.14 (.020)	41	56.10±10.89	2.50 (.088)
	Second	29	11.76±1.72		28	60.86±8.84	
	Third	11	12.45±1.29		10	61.60±7.83	
Babys sex	Boy	41	11.39±2.17	0.00 (.998)	41	57.41±9.37	-0.68 (.498)
	Girl	36	11.39±2.45		34	59.03±11.15	
Husbands participation in delivery	Yes	38	11.05±2.44	-0.69 (.492)	38	57.16±10.34	-1.13 (.263)
	No	43	11.42±2.33		41	59.71±9.76	

Note. No responses are excluded.

계를 보였으나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r=.19$ ,  $p=.097$ )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전체 집단의 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은( $r=.30$ ,  $p<.001$ )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기 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영아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요구는 일차적으로 부모에 의해 충족된다.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며, 부모 역할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Ateah, 2013; Mercer & Walker, 2006).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이전보다는 양육의 직

접적인 책임에도 무게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아버지 또한 신생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아버지로서의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지식 점수가 아버지보다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지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정도가 아버지에게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Lee, Lee, Kim, Kim, & Park, 2004). 문항별 돌보기 지식 점수에서 부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수유, 배꼽 간호 관련 문항과 주변 환경 관리 3문항 중 2문항, 그리고 이상증상 발견 및 간호 관련 문항 중 절반의 문항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지식 점수 차이에서 목욕, 수유, 트림, 체온 및 환경 관련 문항과 이상증상 간호 관련, 배꼽 관련 문항 등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의 결과보다는(Lee et al.,

**Table 2.** Difference of Fathers Knowledge and Confidence of Newborn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5)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Confidence		
		n	M±SD	t or F (p) Scheffé	n	M±SD	t or F (p) Scheffé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1	9.05±2.69	-1.05 (.297)	21	50.33±9.80	-1.04 (.304)
	≥ Undergraduate	61	9.69±2.31		58	53.43±12.37	
Occupation	Office worker <sup>a</sup>	30	9.90±2.19	3.72 (.008) b>e	27	51.00±10.52	1.12 (.356)
	Public Official <sup>b</sup>	12	10.75±2.30		12	52.42±11.45	
	Businessman <sup>c</sup>	17	10.00±2.15		18	53.11±16.06	
	Educator <sup>d</sup>	3	8.00±2.65		2	59.00±7.07	
	Others <sup>e</sup>	20	8.05±2.42		20	52.80±8.64	
Family income	100~200 <sup>a</sup>	7	7.57±2.44	3.58 (.018) a<b	7	57.14±7.45	0.64 (.592)
	201~300 <sup>b</sup>	23	10.61±2.61		21	53.38±11.39	
	301~400 <sup>c</sup>	31	9.19±2.33		31	50.74±11.41	
	≥401 <sup>d</sup>	21	9.48±1.83		20	53.10±13.92	
Family type	Nuclear	70	9.57±2.37	0.42 (.673)	69	52.23±12.11	-0.74 (.459)
	With parents or other members	12	9.25±2.77		10	55.20±9.05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	50	9.72±2.23	0.55 (.579)	49	55.00±11.67	3.98 (.023)
	Satisfied	23	9.13±2.63		21	48.76±10.62	
	Moderate	7	9.86±2.34		7	44.71±10.92	
Planned pregnancy	Yes	52	9.63±2.31	0.54 (.590)	49	54.47±10.81	1.83 (.072)
	No	30	9.33±2.62		30	49.57±12.76	
Delivery type	Normal delivery	41	9.54±2.71	-0.22 (.829)	39	52.36±9.69	-0.04 (.969)
	C-section	40	9.65±1.94		39	52.46±13.55	
Babys order	First <sup>a</sup>	44	8.77±2.47	5.60 (.005) a<b, c	42	50.21±10.10	2.16 (.123)
	Second <sup>b</sup>	28	10.18±2.14		26	56.19±12.78	
	≥Third <sup>c</sup>	10	11.00±1.76		11	53.27±13.92	
Babys sex	Boy	41	9.27±2.26	-1.43 (.156)	38	52.05±11.43	-0.02 (.983)
	Girl	36	10.03±2.38		36	52.11±12.05	
Participation in delivery	Yes	40	9.48±2.84	-0.11 (.910)	38	53.53±10.25	0.76 (.451)
	No	41	9.54±1.98		40	51.50±13.13	

Note. No responses are excluded.

2004),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줄어든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부모간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돌보기 지식 문항 중 ‘아기의 생리적 황달은 일반적으로 2주간 지속 된다’와 ‘아기가 설사를 하는 경우라도 계속 수유해야 한다’는 문항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지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황달 관련 문항과 이상증상 간호 관련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양육정보에는 수유방법 등과 같은 영양 관련 정보와 함께 아기가 아플 때 대처방법, 성장발달, 안전 관련,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Kim et al., 2007) 비교적 빈발하는 신생아 건강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부모 모두에게 필요함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점수는 9.59점으로, 선행연구(An & Bang, 2014)의 퇴원 한 달 후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평균 지식 점수인 10.19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An과 Bang (2014)의 연구에서는 지식 문항에서 아버지의 아기 방의 온도 관련 문항, 아기 방 습도 문항의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보다 아버지는 이러한 환경조절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자신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Lee et al., 2004). 본 연구에서 문항별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보기 자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of Newborn Care Between Mothers and Fathers

Items	Mothers	Fathers	t	p
	M±SD	M±SD		
1. It is good to follow a strict feeding interval	0.52±0.50	0.29±0.46	3.66	<.001
2. It is good to bath a baby immediately after feeding	0.88±0.33	0.78±0.42	1.73	.088
3. You should tap an infant hard on the back to burp it.	0.93±0.26	0.83±0.38	2.19	.032
4. A new born babys normal temperature in 36.5~37.5	0.77±0.43	0.62±0.49	2.33	.022
5. The suitable temperature for a babys room is about 20~22	0.54±0.50	0.45±0.50	1.26	.211
6. The suitable humidity for a babys room is about 60%	0.68±0.47	0.55±0.50	2.16	.033
7. A baby can distinguish white from black at a distance of about 20 cm in a week after its birth.	0.41±0.50	0.33±0.47	1.22	.225
8. Wrapping a baby is an effective method of calming it.	0.98±0.15	0.95±0.22	1.00	.320
9. You should support a babys back and head to hold it.	0.98±0.15	0.98±0.15	0.00	1.00
10. Physiological jaundice usually lasts for about two weeks.	0.12±0.33	0.11±0.31	0.30	.765
11. A babys normal stool is a lot of wet its diaper and has a green color.	0.66±0.48	0.42±0.50	3.68	<.001
12. You should continue feeding a baby even if it has diarrhea.	0.35±0.48	0.24±0.43	1.63	.106
13. When a baby throws up, you should turn its head aside.	0.82±0.39	0.86±0.35	-0.77	.442
14. When a baby has a fever, you should take off its clothes and blanket.	0.80±0.41	0.66±0.48	2.47	.015
15. When a baby has a diaper rash, you should expose its butt to air.	0.94±0.24	0.82±0.39	2.78	.007
16. You should disinfect the babys umbilical cord with alcohol and then dry it until it falls off.	0.84±0.37	0.61±0.50	3.53	.001
Total	11.23±2.39	9.59±2.40	5.74	<.001

**Table 4.** Difference of Confidence of Newborn Care Between Mothers and Fathers

Items	Mothers	Fathers	t	p
	M±SD	M±SD		
1. I can adjust the bath water temperature for the baby.	3.61±0.84	3.17±0.98	3.32	.001
2. I can prepare things necessary for bathing the baby.	3.94±0.79	3.39±1.05	4.03	<.001
3. I can hold the baby well bathing it.	3.49±0.98	3.37±1.11	0.74	.464
4. I can care for the babys umbilical cord.	3.33±1.01	2.57±0.92	4.71	<.001
5. I can detect abnormal symptoms of the babys umbilical cord.	2.83±1.01	2.22±0.81	4.13	<.001
6. I can adjust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for the baby properly.	3.24±0.81	3.04±0.85	1.75	.084
7. I can change the babys diaper on my own.	4.17±0.83	3.73±1.12	2.90	.005
8. I can distinguish the babys normal stool from abnormal one.	3.40±0.96	2.92±1.05	2.94	.004
9. I can distinguish symptoms of infant jaundice.	3.07±0.88	2.55±0.98	4.22	.000
10. I can measure the babys temperature.	3.99±0.90	3.72±1.02	2.08	.040
11. I can cope with the baby vomiting.	3.33±0.96	3.00±1.13	1.96	.054
12. I can burp the baby after feeding.	3.91±0.82	3.61±1.02	2.12	.037
13. I can soothe the baby crying.	3.61±0.88	3.22±1.14	2.61	.011
14. I can hold the baby myself.	3.96±0.83	3.84±1.00	0.91	.365
15. I can keep eye contact and talk to the baby while it is awake.	4.25±0.70	4.17±0.91	0.73	.466
16. I can take care of the baby myself when my partner is out.	3.84±0.96	3.45±1.26	2.23	.028
Total	58.47±9.91	52.44±12.05	3.29	.002

**Table 5.** Correlations of Newborn Care Knowledge and Confidence

Variables	Mother's Knowledge	Father's Knowledge	Total Knowledge
	r (p)	r (p)	r (p)
Mother's confidence	.29 (.011)		
Father's confidence		.19 (.097)	
Total confidence			.30 ( $< .001$ )

신감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문항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모든 문항에서 어머니의 자신감이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등(2004)의 연구에서 아기 달래기, 배꼽 간호, 기저귀 갈기, 이상증상 간호 관련 문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Lee 등(2004)의 연구에서는 또한 우는 아이 달래주기에서만 아버지가 더 점수가 높았으며, 나머지는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보기 자신감 문항 중 어머니와 아버지 자신감이 특히 낮게 나타난 문항은 배꼽 간호 및 황달 관련 문항이었다. 이는 신생아 부모들이 아기를 돌볼에 있어 특별한 기술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낮은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 선행연구(Kang et al., 2004; Lee et al., 2004)의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다.

신생아 어머니의 가장 자신감이 높은 항목은 Moon과 Han (2006)의 연구에서도 트림시키기, 목욕시키기, 수유관리 순이었고, 목욕 후 위생관리가 자신감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며, Kang 등(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중 가장 높은 문항은 포옹하기, 안아주기, 기저귀 갈아주기 순이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내용은 퇴원 교육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신감이 낮게 파악된 문항들은 퇴원교육이나 산후조리원에서 교육내용에 반영한다면 부모의 돌보기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점수는 52.44점으로 선행연구에서 퇴원 한 달 후 아버지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점수가 56.81점으로 측정된 것과 비교하면(An & Bang, 2014) 다소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경우 아버지를 대상으로 특별히 교육을 했기 때문으로, 본 대상자들에서도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돌보기 지식 점수를 살펴보면 신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기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지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산모가 초산모에 비해 양육지식이 높고, 신생아 돌봄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경험이 없는 아버지보다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나타낸다고 한 Lee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양육 경험이 없는 부모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특히 첫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퇴원 후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시키는 간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신생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어머니의 지식과 자신감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신생아돌보기 지식이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자신감을 갖게 되어(Moon, 2008)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진다(Kang et al., 2004). 양육 자신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기에게 정서적, 언어적으로 많은 반응을 보이고 발달 촉진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한다고 하였다. 언어적 반응은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중요하다(Kim et al., 2007). Oh와 Yee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의 신호에 대한 이해와 반응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의 성장발달증진 및 영아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과 Bang (2013)의 연구에서는 특히 양육보다도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신생아 및 영유아 부모 대상 교육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기의 양육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는 아기의 긍정적 성장발달을 돕는다는 연구를 고려할 때(Hong & Hwang, 2007; Sarkadi et al., 2008), 대부분 신생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퇴원교육에 신생아 아버지도 참여시켜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영유아 발달을 이끌 수 있도록 간호사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생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비교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한지 파악함으로써 신생아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신생아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첫째 아기인 경우 부모 모두 지식과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생아

의 건강문제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병원 퇴원교육이나 보건소의 임부교실,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부모 및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신생아 어머니뿐 아니라 신생아 아버지를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에는 신생아 부모 교육의 효과 평가나 이후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An, H. S., & Bang, K. S. (2014). Effects of newborn care education for first-time fathers on their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at postpartum one mon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4), 428-436.
- An, H. S. (2014). *The effects of newborn care education on first-time fathers with knowledge and confidence in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Ateah, C. A. (2013). Prenatal parent education for first-time expectant parents: "Making it through labor is just the beginning...".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7*(2), 91-97.
- Fagerskiold, A. (2006). Support of fathers of infants by the child health nurs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0*(1), 79-85.
- Hong, K. H., & Hwang, J. H. (2007). A study on father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fathering -For fathers with infants and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11*(2), 5-24.
- Hwang, E. J. (2003). *The comparison of paternal attachment and role confidence to newborn between participation group and non-participation group in family delivery ro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Kang, K. A., Kim, S. J., & Son, E. J. (2004). A study on the mothers perception, caring-confidence, and attitude towards own newborn infa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0*(3), 311-320.
- Kim, H. K. (2005). *The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ng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confidence and behavior about newborn care of primiparas in the postpartum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im, Y. D. (2011). *The parenting characteristic of inexperienced father and the process of becoming fa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 Lee, H. J., Lee, S. A., Kim, M. H., Kim, Y. H., & Park, N. H. (2004). A study of parental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0*(3), 262-271.
- Lee, K. H. (2009).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S. M., & Jang, J. M. (2009). A study on parent efficacy and child rearing knowledge of parents in pregnan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251-273.
- Lee, Y. J. (2006). *Self confidence and educational needs of newborn care in normal and high-risk newborn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Daejeon.
- Leigh, B., & Milgrom, J. (2008). Risk factors for antenatal depression, postnatal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BMC Psychiatry, 8*, 24-35.  
<http://dx.doi.org/10.1186/1471-244X-8-24>
- Lim, J. A. (2001).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 class upon father's level of knowledge and confidence of postpartal mother and newborn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Mercer, R., & Walker, L. (2006). A review of nursing interventions to foster becoming a mother.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35*(5), 568-582.
- Moon, S. B. (2008). *The effects of education on primiparas postpartum self-care and newborn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Moon, Y. S., & Han, J. S. (2006). A study on neonatal perception and caring-confidence of normal and high-risk newborn mothers.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9*(2), 116-127.
- Nelson, A. (2003). Transition to motherhood.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2*, 456-477.
- Oh, M. Y., & Yee, Y. H. (2006).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n the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3), 47-62.
- Park, J. Y., & Bang, K. S. (2013). Knowledge and needs of premature infant development and rearing for mothers with premature infants. *Korea Parent-Child Health Journal, 16*(1), 17-26.
- Park, M. H. (2009). *The effect of newborn care education on the self confidence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of primipar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Sarkadi, A., Kristina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1*, 153-158.
- Seo, Y. M. (1998).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n primiparas' knowledge, confidence and accuracy of behavior in newborn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4), 1060-1074.
- Zwelling, W. (1996). Childbirth education in the 1990s and beyond.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25*, 425-432.